

영국 보건안전청, Disease X 연구센터 설립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 영국 보건안전청, Disease X 대비 등을 위해 백신 개발 및 평가센터(VDEC) 설립

- 8월 7일, 영국 보건안전청(UK Health Security Agency)은 국내 및 해외 파트너와 협력하여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는데 시급히 필요한 백신 개발을 위해 백신개발평가센터(Vaccine Development and Evaluation Center, VDEC)를 설립했다고 밝힘.
- 백신개발평가센터(VDEC)는 2개의 최첨단 실험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약 100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200명 이상의 고도로 훈련된 과학자가 참여함.
- 백신개발평가센터(VDEC)는 △백신 효능 테스트 △크리미안-콩고 출혈열 백신 개발, △계절 인플루엔자 신속 테스트 및 평가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 테스트 △Disease X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 △신종 병원체에 대응할 수 있는 고처리량 스크리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즉, 백신에 의해 생성된 항체 및 기타 면역 반응이 다른 바이러스를 얼마나 잘 중화할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는 백신 효능 테스트를 개발하고, 감염환자의 30%가 사망하는 크리미아-콩고 출혈열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며, 이미 인간을 감염시킬 수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고 테스트하며, X 등급의 병원체에 대처하기 위한 연구를 하며, 새로 출현하는 병원체에 대해 효과적일 수 있는 다양한 백신, 약물 및 기타 잠재적 치료 후보를 통해 신속하게 스크리닝할 수 있는 다양한 면역학적 분석 또는 테스트 개발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백신개발평가센터의 역할에 '질병 X (Disease X)에 대한 준비'가 포함되어 있음.

- X는 동물로부터 인간으로 전이되어 인간에게 위협이 되거나 또다른 팬데믹으로 확산될 수 있는 병원균을 알지 못한다는 '미지(未知, Unknown)'의 질병을 말함.
- 이러한 Disease X는 새로운 개념의 용어는 아님. 이미 WHO는 2018년 2월 '우선순위 질병 청사진 목록(List of Blueprint Priority Diseases)'에 처음으로 Disease X를 추가해 가속화된 연구개발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음.
- 예를 들어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이 이미 알려진 병원체에 대한 백신 및 치료법을 개발하면 또 다른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물에서 인간으로 점프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병원체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이에, 영국 정부는 'X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 = 현재 알려지지 않은 병원체에 대한 사전 대비' 라는 판단 하에 새로 설립된 백신개발평가센터가 중심이 되어 Disease X 연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참고자료>

1. UKHSA unveils VDEC in 'step change' for UK's growing vaccine capabilities, GOV.UK 보도자료, 2023.8.7.
2. UKHSA's Vaccine Development and Evaluation Centre (VDEC), GOV.UK 가이드스, 2023.8.7.
3. What Is Disease X? U.K. Establishes VDEC, New Vaccine Research Center, Fobes, 2023.8.7